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도로 개방률 56%

상무역 주변 등 3곳 1.8km 예정대로 개방...8월 말 8.1km 완료
세계양궁대회 선수단 수송로-2호선 공사 중첩 구간 정비 마쳐
도로포장 품질 관리·개방 전 구간별 안전점검 등 안전 최우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정-광주역)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구간 도로 개방이 8월말 현재 56%를 달성하는 등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개방 공정에 속도를 내 오는 12월22일까지 백운광장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도로를 전면 개방해 교통흐름을 정상화 한다는 목표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도로 개방률은 6.3km, 43%에 머물렀으나, 상무역 주변 등 3곳 1.8km구간의 도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 8월말 현재 8.1km, 56%까지 향상됐다.

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숙소 등 선수단이 오가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1.4km) 중 급화로 800m 구간은 복공판을 철거하고 8월말 정상 개방했다. 다만, 양궁장 앞 600m 구간은 7월 극한호우로 인해 되메우기 공정이 늦어져 도로 개방이 지연돼 11월 말 개방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수단 수송 도시철도 공사구간에 대해 선수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과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점용 구간의 울타리(펜스) 전면 철거 및 복공판 도색 등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낮은 복공판을 교체하는 등 보수 작업을 병행하고, 복공



판 단차를 없애기 위해 도로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도로 개방 전 구간별로 안전점검과 도로포장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 중앙분리대 설치,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추진 중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대중교통 전환의 핵심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크다"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개방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시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천원국시 일하는 어르신 건강도 챙긴다

혈압 등 건강측정, 근력·유연성 등 체력측정 후 맞춤형관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국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52명을 대상으로 체력 및 건강 측정을 진행,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일자리 활동의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주간 매주 월·수·금, 총 6회에 걸쳐 서구체력인증센터(보건소 4층)에서 체력·건강 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력 측정은 ▲근기능(상·하지)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 등 6개 항목이며 건강 측정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밀도 ▲체성분 등 8개 항목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서구는 측정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법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한다. 또한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전·후 체력 변화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일자리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복지과 건강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보건소 건강사업과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 등 6개 항목이며 건강 측정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밀도 ▲체성분 등 8개 항목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서구는 측정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북구,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123개소... 전 지역 지정 선포

오는 4일 '새로운 시작, 빛나는 골목' 주제 북구 전 지역 지정 선포식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오는 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 전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으며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가 주축하는 '금·토야시장' 행사와 연계 추진된다.
선포식은 '새로운 시작, 빛나는 골목'을 주제로 4일 오후 다섯 시부터 설죽로202번길 일원에서 진행되며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골목형 상점가 상인,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영상 상영 ▲전국 최다 지정 선포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골목 경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골목형 상점가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빠르게 움직여 전남대 후문과 황계 마을 상권 2곳을 '광주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관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목표로 지정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펼친 결과 전국 최다인 123개소(13,440점포)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선포식 이후 이어질 '금·토야시장'은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의 주축로 마련된 행사이며 '쌈으로 잇다 맞



로 맞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8일까지 총 12회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야시장은 광주의 특색 있는 먹거리인 상추 튀김을 대표 메뉴로 정하고 ▲상추튀김존 ▲한식존 ▲청년존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 운영과 버스킹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온라인 채널에 야시장 방문 인증샷과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리뷰이벤트도 병행된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17일까지 축산차량 소독용 방역시설 일제 정비

거점 세척·소독시설 22개소 대상 소독 유효성 평가 등 집중

전라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주요 출입로에 설치된 축산차량 소독용 방역시설인 거점 세척·소독시설 22개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앞두고 가동 중인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점 세척·소독시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차량 각 부위에 감수지 등 부착, 소독실시 후 색 변화 통해 소독 유효성 평가 ▲소독기 노즐에

서 분무되는 소독수 채취, 적정 희석 확인 검사 등이다.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참여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9월 중 보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거점 세척·소독시설은 농장 간 가축전염병 확산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중요한 방역시설인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과 과학적 소독 평가를 통해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위험시기에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과 환경보호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중순에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난 대촌천 수계에서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제10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이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식교 일근에서 펼쳐진다.
올해 주제는 '반딧불이 빛으로 그린 밤의 이야기'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체험은 부스 체험과 식전·본무대

광주 남구, '신기방기 엉덩이 불빛' 반딧불이 축제 대촌천 수계에서 오는 20일 생태체험 진행

행사, 반딧불이 서식지 탐방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부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시간으로 채워진다. 암실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체험을 비롯해 LED를 사용해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탄소 헌터스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2부 행사에서는 청정 지역에 울려 퍼지는 통기타 및 팬 플루트 연주회와 반딧불

이 퀴즈 대회를 선보인다. 대자연에서 가을 감성을 즐기면서 퀴즈를 맞힌 참가자에게는 반딧불이를 직접 방사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3부 행사는 탐방로 해설사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인 지식교에서 철석보 구간을 왕복하면서 반딧불이 만남 및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을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참가자 모집

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 모집은 접수 시작과 함께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기 접수 마감으로 행사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은 오는 21일부터 29일 사이에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개별 서식지 탐방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딧불이 체험에 나설 수 있다. 이 기간 별자리 관측은 오는 27일 토요일 하루만 이용할 수 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